

#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는 귀인양식과 매개요인들,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Attributional style and mediator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군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심희옥

Kunsan National Univer., Dept. of Home Management  
Full-time Lecturer : Hee-og Sim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 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influence of the attributional style on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the mediator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number & satisfaction). It was hypothesized that self-esteem and the number and satisfaction of social support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and depr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26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by using a series of path analyses. The following scales were used;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Self-esteem scal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ributional style for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and depression. The mediation of social support was various according to the positive or negative outcomes of attributional style and the number or satisfaction of social support.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relation to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style o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 1. 서론

우울에 관한 개정된 학습된 무기력 이론(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은 우울성향에 대한 원인과 유지에 대하여 개개인을 우울에 취약하게 만드는 부적응적인 원인 추론(causal inference) 혹은 귀인양식(attributional style)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개개인이 다른 귀인양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귀인양식은 우울 반응을 더 일으키게 한다는 우울적인 귀인양식(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귀인양식은 내적/외적(internal/external), 안정적/불안정적(stable/unstable), 총체적/특정적(global/specific)이라는 정반대의 형용사로 표현되는데, 내적인 귀인양식은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 원인이 외부 또는 상황이나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나'로부터의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귀인양식은 어떤 상황에 대한 원인이 미래에 바뀌기보다는 같은 원인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총체적인 귀인양식이란 어떤 원인이 주어진 상황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의 다른 부분(영역)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인지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어떤 일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원인으로 귀인하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외적이고, 불안정적이며, 특정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것은 우울증 증상의 일반화와 만성화를 촉진한다고 한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내적 차원은 자아 존중감의 수준과 관련이 있고, 안정성차원은 우울의 만성화를, 총체성차원은 우울의 일반화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임상학자나 실험심리학자들은 우울에 관해 무력감이나 무망감(hopelessness)을 강조하며, 우울한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통제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울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일련의 귀인보다 특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그들의 독특한 귀인양식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Peterson & Seligman, 1984)와 더불어 그렇지 않다는 연구(Cochran & Hammen, 1985; Metalsky 외, 1982) 등 연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일치하는 연구에서도 귀인양식이 우울변량의 적은 부분밖에 설명하지 못함을 보고한다. 이는 우울성향 변인의 설명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변인들이 포함되어야함을 시사한다. 귀인양식이 우울성향의 취약요인(vulnerability factor)으로 보고(Crocker 외, 1988)되고 있으나, 대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의 적절한 설명변량을 갖기 위해 다른 요인들을 상정해 볼 수 있겠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매개변인(mediator)은 독립변인에 의해 생성된 변인으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어떻게 혹은 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밝혀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혹은 왜 귀인양식이 우울성향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우울같은 내면의 부적응이나 비행 행동이나 약물 복용 같은 외면화된 부적응 문제에서 상정되는 변인으로 개인적 자원인 자아 존중감과 환경적 자원인 사회적 지원을 귀인양식과 우울성향간의 매개변인으로 상정하였다. 또한, 이 자원들을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이유는 이들은 개인의 인지, 지각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Brewin, 1986; Brewin 외, 1989; Tiggemann 외 1991), 또한 심리적 적응(Brown 외, 1986; Monroe 외, 1983; Sarason 외, 1983)과도 관련이 있는 변인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비임상 집단 대학생의 우울성향에 관한 것으로 우울성향이라 함은 깊고 널리 퍼져있는 낙담감으로 개인적인 무가치감이나 무감동을 동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할 수 있겠다. 물론 오래 전의 미국의 경우이지만, 우울성향은 대학교에서 주목받는 정신병으로 간주되며(Beck & Young, 1978), 대학생의 17-2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Bumberry, Oliver & McClure, 1978; Oliver & Burkham, 1979), 대학생 집단이 같은 또래의 대학생이 아닌 집단보다 50%이상 더 많이 자살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Teuting, Koslow, & Hirschfeld, 1981). 우리 나라 대학생의 경우, 학교별 차이,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적응해야 할 상황들, 남학생의 경우 군대 문제, 남녀학생의 진로 문제 등으로 그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미국 대학생의

경우보다 클지도 모른다.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이해하여 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우울성향에 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의 가상 상황에 대한 대학생들의 귀인양식이 그들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혹은 왜 귀인양식이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귀인양식과 우울성향 사이의 두 가지의 매개요인, 즉 개개인의 인지과 지각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을 상정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인양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의 주요한 중재나 매개요인이며 개인적인 자원인 자아 존중감과 환경적 자원인 사회적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또한 대학생의 우울성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귀인양식과 우울성향

Seligman과 그의 동료들(1979)은 우울하지 않은 대학생과 비교해 볼 때, 우울한 대학생이 부정적인 결과를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으로 귀인하고, 또한 우울한 대학생이 긍정적인 결과를 외적이고, 불안정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 Peterson과 Seligman(1984)은 종단과 횡단연구를 통해 다양한 피험자(대학생, 아동, 저소득층의 여성,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나 정신과적인 진단을 하여 부정적인 사건을 설명하는데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총체적인 귀인양식이 우울성향과 유의미한 관련이 대부분 있음을 보고한다. 그들의 연구들 대부분은 우울적인 설명양식(귀인양식)이, 특별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우울증세에 앞선다는 것을 지지하며, 피험자의 부정적인 사건의 설명 양식을 통해 우울에 빠질 개인들을 확인(발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귀인양식과 우울간의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귀인양식이 우울성

향의 변량을 적은 부분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영호, 1993).

### 2. 귀인양식과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감이나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자아 개념의 평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말한다(Santrock, 1994). 우울성향에 관한 개정된 무기력 모형에서 내적인 차원이 단독으로 자아 존중감을 낮게 한다고 가정 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내적인 귀인이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다른 주장들이 있다(이영호, 1993). 내적인 차원이 안정성과 총체성 차원을 합친 일반성(generality) 차원과 상호 작용하여 자아 존중감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Metalsky 외, 1987), 내적, 안정성 및 총체성 차원이 삼원 상호작용하여 자아 존중감의 저하를 설명하기도 한다 (Carver, 1989).

또한, 귀인양식 개개의 차원 혹은 내부, 안정성, 총체성 세 차원을 합한 귀인 양식 점수와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Brewin과 Furnham (1986)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의 인지적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에서, 가상적인 사건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적인 귀인은 대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었고, 또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귀인도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인 귀인은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었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더 내적이고, 총체적인 귀인을 할수록 더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Tennen과 Herzberger(1987)의 대학생들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피험자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을 하고, 부정적인 결과는 덜내적으로 귀인하고, 우울한 피험자가 부적인 결과를 더 총체적으로 귀인 하였다.

Tiggemann과 그의 동료들은(1991)은 내부, 안정성, 총체성 세 차원을 합한 귀인양식의 종합 점수를 사용하여 긍정 그리고 부정적 상황에서의 귀인 양식이 1년 후의 자아 존중감, 우울성향을 예견한 연구에서

소위 우울적인 귀인양식과 더 낮은 자아 존중감이 그리고 더 많은 우울성향이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부, 안정성, 통제성의 종합점수는 더 높은 자아 존중감과 그리고 더 낮은 우울과 관련을 보였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부, 안정성, 통제성의 종합점수는 더 낮은 자아 존중감과 그리고 더 높은 우울과 관련을 보였다. 또한, 초기의 심리적인 복지 상태를 통제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일련의 귀인양식은 더 낮은 자아 존중감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 3. 귀인양식과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가용성으로 보통 정의된다(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 사회적 지원은 우리 인생을 통해 꼭 필요한 존재로 사회적 지원의 “자연적인” 근원은 가족 구성원, 친척, 친구, 이웃, 교회 구성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지원이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행동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며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Eckenrode, 1983; Lefcourt, Martin, & Saleh, 1984; Sarason, Levine, Basham, & Sarason, 1983). 어떤 사람은 왜 적은 사회의 지원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들은 이용 가능한 지지 혹은 후원을 잘 지각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친해질 기회를 일부러 피할수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정된 성격특징처럼, 지원을 바라고, 얻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Brewin, MacCarthy, & Furnham, 1989). Brewin과 그의 동료들은(1989) 귀인양식과 사회적 지원을 지각하고 이용하는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물론 상관계수를 통한 분석이지만, 어떤 일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안정적이고, 통제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대학생과 성인들이 수적으로 더 적은 사회적 지원을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수와는 달리 사

회적 지원의 질(만족도)은 각 차원의 귀인양식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고, 사회적인 지원의 수와 질은 모두 긍정적 결과에 대한 각 차원의 귀인양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4. 자아 존중감과 우울성향

Lewinsohn과 그의 동료들(1981)의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한 단기 종단적 연구는 우울한 사람들이 더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고, Brown과 그의 동료들은(1986) 성인 여자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자기평가(낮은 자아 존중감)가 우울성향을 증가시키는데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Tennen과 Herzberger(1987)의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더 적은 무력감을 보고하였다.

### 5. 사회적 지원과 우울성향

Bowlby의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에 의하면, 인생의 초기에 애착 형태로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 아동들은 자기 확신(self-reliant)을 가지며, 타인을 도움 줄 알고 나중의 삶에서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 Bowlby는 또한 사회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이 좌절을 이겨내게 해주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도전에 견디는 능력을 준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대처(coping)에 관한 횡단과 종단적 연구들은 Bowlby의 이러한 설명을 지지한다. Hobfoll과 그의 동료들(1990)은 사회적 지원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복지의 중심 주축대라고 하며, 사회적 지원이 주요 운반 기구(major vehicle)가 되어 개인의 제한된 자원을 넓혀준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원이 적어 우울증을 보이는 경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Monroe와 그의 동료들(1983)은 대학생의 연구에서 그들은 사회적 지원을 4 가지로(집에서 가족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지, 어떤 사교나 종교 집단에 속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실망감과 약점을 좋은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편안한지 여부) 측정하였

다. 집에서 가족과 살고 있는지의 여부가 기말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우울증을 보호해 주었음이 보고되었다. 성인 여자들을 대상으로한 Brow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6)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할 때 우울성향의 증가를 보였다. Vinokur와 그의 동료들(1987)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좋지않은 정신건강(불안과 우울성향)과 얻은 사회적 지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하였고, Sarason과 그의 동료들은(1983)은 대학생 남녀 모두에게서 사회적 지원의 수와 만족도 각각이 우울성향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사회적 지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해 더 낙관적이었다고 보고한다. Brewin과 그의 동료들은(1989) 우울 성향이 더 적은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나, 수적인 사회적 지원과는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귀인양식과 우울성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어떤 일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은 우울성향과 부적인(negative)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 1-2. 어떤 일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은 우울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2〉 귀인양식과 자아 존중감 그리고 귀인양식과 사회적 지원의 수와 만족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1. 어떤 일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은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의 수 그리고 만족감과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며, 어떤 일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은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의 수 그리고 만족감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3〉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의 수와

만족감은 귀인양식과 우울성향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인가?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K대학교에 재학중인 2(84%), 3(16%)학년 학생 300명이였다. 조사기간은 1994년 9월 22일에서 10월 19일까지였다. 300명의 조사대상자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뺀 226명(남자 120, 여자 106)의 답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58세였다.

#### 2. 조사도구

##### 1) 귀인양식 검사

Peterson과 그의 동료들(1982)이 만든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ASQ)를 번역하여 귀인양식을 측정하였다. ASQ는 12개의 항목으로 되어있고 각 항목은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이 묘사하는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하도록 지시 받은 다음, 그 사건이 발생한 주요 원인을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12개의 상황은 6개의 긍정적 상황(결과)과 6개의 부정적 상황으로 구성되어있고, 귀인의 3차원(내적/외적, 안정성/불안정성, 총체성/특정성)을 1-7까지의 Likert 척도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1 방향 쪽은 외적, 불안정적, 특정적인 귀인을 의미하고, 7 방향 쪽은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을 의미한다. 긍정적 사건의 한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굉장히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해냈다”, 주요 원인(이유)을 하나만 쓰시오. 당신이 칭찬 받은 이유는 당신으로부터의 어떤 것 때문인가요 혹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 때문인가요?(내적/외적), 미래에 당신이 위의 일을 겪는다면, 위의 이유가 그대로 존재할까요? (안정/불안정), 위의 이유가 당신이 일을 하는데만 영향을 미칠까요 혹은 당신 생활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도구의 Cronbach Alpha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부/외부차원이 .63, 안

정/불안정차원이 .65, 총체성/특정성차원이 .62이고 그리고 이들 세 차원을 합한 종합점수는 .81였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외부차원이 .56, 안정/불안정차원이 .63, 총체성/특정성차원이 .70이고, 그리고 이들 세 차원을 합한 종합 점수는 .77였다.

#### 2) 자아 존중감 검사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SES)을 번역하여 대학생의 총체적인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정말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응답자의 자아 존중감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 Alpha는 .78이었다.

#### 3) 사회적 지원 검사

Sarason과 그의 동료들(1983)이 만든 간략형 Social Support Questionnaire(SSQ)를 번역하여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원의 수(크기)와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먼저 응답자들은 일련의 가상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지원을 줄 사람을 “아무도 없다”에서 9명까지 기록하고, 또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지원의 만족정도를 “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6점 척도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원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다. 이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 Alpha는 사회적 지원의 수는 .96이고,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는 .90이었다.

#### 4) 우울성향 검사

Beck(1967b)이 만든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번역한 것으로 W대학교 병원에서 우울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이 연구에서는 총 21개의 항목에서 성욕(sexuality)에 관한 질문인 마지막 항목을 제외한 20개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항목마다 4가지의 진술 중에서 지난 1 주 동안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한다. 한 항목을 예로 들면 “1)나는 슬프지 않다 2)가끔 슬플 때가 있다 3)항상 슬픔에 젖어 헤어날 수가 없다 4)대단히 슬프고 불행해서 견딜 수가 없다”이다. 이 연구에서 이 도구의 Cronbach Alpha는 .79이었다.

### 3. 자료분석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t검증, 그리고 회귀 기술을 사용한 일련의 경로 분석이 PC-SAS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 IV. 연구결과

이 연구의 변인들 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변인간의 성별 차이를 보면,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한 종합점수의 귀인양식과 우울성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없었고, 사회적 지원의 수는 남자의 경우가 더 컸고  $t(223)=2.44, p<.05$ ,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 또한 남자가 높았다  $t(226)=3.22$ ,

<표 1> 변인의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1. 귀인양식(긍정적 결과)	---					
2. 귀인양식(부정적 결과)	.01	---				
3. 자아 존중감	.28 <sup>d</sup>	-.13 <sup>a</sup>	---			
4. 사회적 지원의 수	.20 <sup>b</sup>	.06	.31 <sup>d</sup>	---		
5. 지원의 만족도	.12 <sup>*</sup>	-.12 <sup>*</sup>	.32 <sup>d</sup>	.44 <sup>d</sup>	---	
6. 우울성향	-.21 <sup>b</sup>	.18 <sup>b</sup>	-.55 <sup>d</sup>	-.25 <sup>d</sup>	-.22 <sup>c</sup>	---

<sup>\*</sup>p<.10 <sup>a</sup>p<.05 <sup>b</sup>p<.01 <sup>c</sup>p<.001 <sup>d</sup>p<.0001

$p < .01$ . 자아 존중감 역시 남자의 경우가 높았다  $t(226) = 4.24, p < .0001$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귀인양식은 우울성향보다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더 컸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귀인양식은 자아 존중감 보다 우울성향과 관련이 더 컸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귀인양식이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보다 사회적 지원의 수와 관련이 더 컸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귀인양식이 사회적 지원의 수 보다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와 관련이 더 컸다. 사회적 지원의 수가 사회적 지원의 만족도 보다 우울성향과 관련이 더 깊었다. 수적으로 많은 사회적 지원을 가질수록 지원에 대한 만족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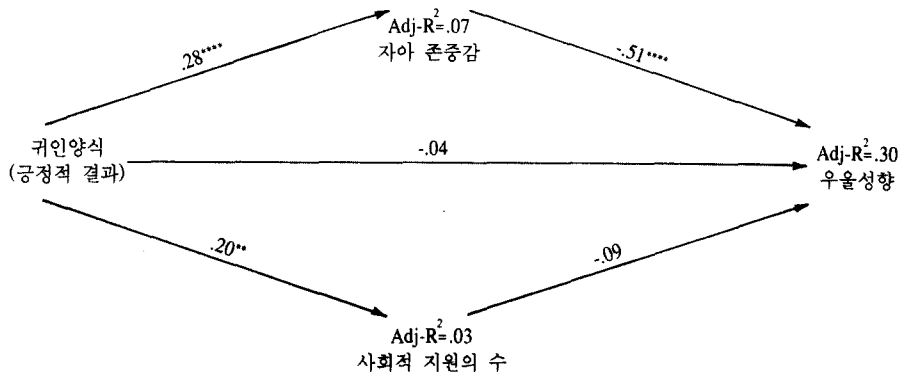
1. 가설 검증

가설 1-1에서 가정된 것처럼,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종합 귀인 점수는 우울성향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Beta = -.21, p < .01$ ). 즉,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을 한 대학생은 더 적은 우울성향을 보인 것이다. 가설 1-2에서 가정된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종합 귀인 점수는 우울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Beta = .17, p < .01$ ). 즉,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을 할수록 더 많은 우울성향을 보인 것이다.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따른 종합 귀인양식이 각각이 10% 미

만(긍정적 결과는 4%, 부정적 결과는 3%)의 우울성향의 변량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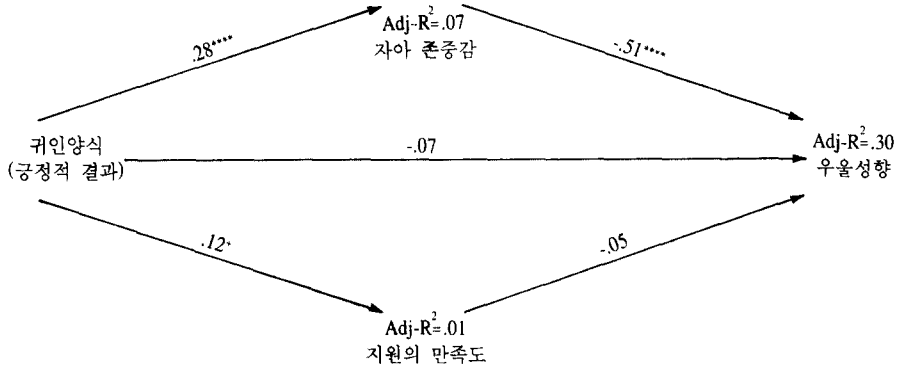
가설 2-1에서 가정된 것처럼,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 귀인은 자아 존중감( $Beta = .28, p < .0001$ )과 사회적 지원의 수( $Beta = .20, p < .01$ )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원의 만족감과는 정적인 관계의 경향성만 보였다( $Beta = .12, p < .10$ ). 즉, 대학생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 귀인을 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고, 수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가진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의 경우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인 결과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은 자아 존중감과 부적인 관계( $Beta = -.13, p < .05$ )를 보이나, 사회적 지원의 수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감과는 부적인 관계의 경향성( $Beta = -.12, p < .10$ )을 보였다. 즉, 부적인 결과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은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만을 유의미하게 낮추었다.

연구문제 3의 경우,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형에 관한 제안대로, 만일 우울성향에 대한 귀인양식의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고,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수와 만족도)에 대한 귀인양식의 영향이 유의미하고(연구 문제 2), 그리고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수와 만족도)이 우울성향에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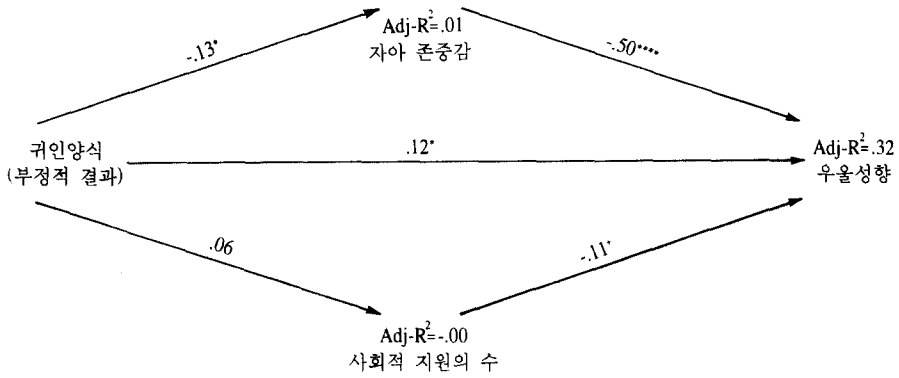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 결과에 대한 귀인과 우울성향의 매개요인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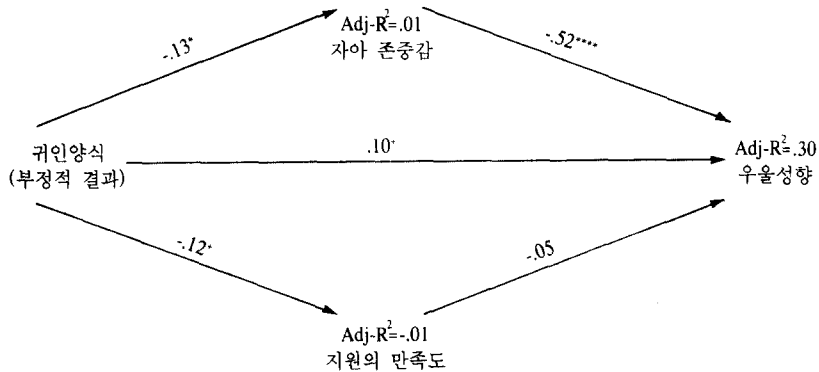
\* $p < .01$  \*\*\* $p < .0001$



〈그림 2〉 긍정적 결과에 대한 귀인과 우울성향의 매개요인 경로분석  
\* $p < .10$  \*\*\*\* $p < .0001$



〈그림 3〉 부정적 결과에 대한 귀인과 우울성향의 매개요인 경로분석  
\* $p < .10$  \* $p < .05$  \*\*\*\* $p < .0001$



〈그림 4〉 부정적 결과에 대한 귀인과 우울성향의 매개요인 경로분석  
\* $p < .10$  \* $p < .05$  \*\*\*\* $p < .0001$



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매개 모형이 지지되게 된다.

긍정적인 결과의 경우,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은 우울성향과 부적 관계를 보이거나(수와 만족도 똑같이  $Beta = -.51$ ,  $p < .0001$ ), 사회적 지원의 수와 만족도,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일련의 귀인양식은 우울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즉, 귀인양식과 사회적 지원이 통제된 경우, 자아 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더 적은 우울성향을 가진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과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원은 우울성향의 변량을 30%정도 설명하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의 경우,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존중감은 우울성향과 부적 관계를 갖는다(수의 경우,  $Beta = -.50$ ,  $p < .0001$ ; 만족도의 경우,  $Beta = -.52$ ,  $p < .0001$ ). 즉, 자아 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더 적은 우울성향을 보인 것이다.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은 우울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다(수의 경우,  $Beta = .12$ ,  $p < .05$ ).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이 우울성향과 정적인 관계의 경향성만을 보인다( $Beta = .10$ ,  $p < .10$ ).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이 통제된 경우에도,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은 더 많은 우울성향을 갖게 한 것으로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원 외에 다른 매개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Baron & Kenny, 1986). 사회적 지원의 수는 우울성향과 부적 관련성의 경향성만을 보였다( $Beta = -.11$ ,  $p < .10$ ). 그리고, 귀인양식과 자아 존중감이 통제된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감은 우울성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 문제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 V. 요약 및 논의

귀인양식이 사회적인 적응이나 정신 건강, 스트레스로부터 견디게 해주는 주요한 개인적, 사회적 자

원들로 확인된,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의 수와 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또한 이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의 수와 만족도는 우울성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요인(mediator)에 관한 설명을 빌리면, 개인의 자아 존중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원은 귀인양식에 의한 자신과 사회(환경)에 대한 심리적 해석내용으로서 귀인양식이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을 유발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연구는 이 과정을 탐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매개요인,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의 수와 만족도, 모델에 관한 가정은 일부만 지지되었다. 매개 모델을 일부 지지하는 긍정적 상황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은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지원의 수를 높여 주는데 기여하였고, 그리고 높은 자아 존중감이 우울성향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이 상황에서, 일련의 귀인양식이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감은 높여 주는 듯하나, 이 만족감이 우울성향을 적게 하는 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하지는 못했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은 자아 존중감을 낮추었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성향이 적었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일련의 귀인양식은 사회적 지원의 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은 낮게 하는 듯 하였다.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대한 일련의 귀인양식이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은 Tiggemann과 그의 동료들(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의 내적, 안정적, 총체적인 귀인양식은 그들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 자아 존중감이 그들의 우울정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분명한 시사를 한다.

결과를 요약하면, 자아 존중감은 긍정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귀인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우울성향의 정도를 좌우하였다. 긍정이나 부정적인 상황의 귀인양식이 사회적 지원의 수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일련의 귀인양식은 사회적 지원의 수에 더 큰 영향을 주었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일련의 귀인양식은 사

회적 지원의 수보다 만족도와 더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긍정적인 상황이나 결과가 자신 때문이고, 안정적이며, 다른 생활의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귀인양식이 사회적 지원의 수를 지각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었고, 부정적인 상황이나 결과가 자신 때문이고, 안정적이며, 다른 생활의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귀인양식이 사회적 지원의 수보다 만족도를 더 낮추어 주는데 기여한 것이다. 또한, 우울성향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질보다는 양과 더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지각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얼마나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지원의 가용성이 우울성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Beck(1967a)의 제안처럼, 우울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꾸어 말하면, 독특한 일련의 귀인양식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갖게 하거나 혹은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하여 사회적 지원을 잘 지각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과 친해질 기회를 피하여 우울성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결론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일정한 한 방향만으로 이론적인 근거 속에서 가정하였으나 변인들 간에 다른 방향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다. 셋째,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귀인은 상황의 특성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개인이 어떤 귀인을 선호하는가 하는 일반화된 경향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이영호, 1993), 실제 상황이 아닌 가상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을 측정된 결과를 실제 상황에 대한 대학생의 귀인양식으로 일반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대학생의 귀인양식과 우울성향간에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다는 분명한 시사이다. 이는 우울성향에서 어떤 인지적인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우울적인 인지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시사를 준다. 이 매개요인들로 우울성향의

예언, 설명변량은 상당히 높아짐을 볼 수 있다. 즉, 일련의 귀인양식 때문에 우울성향이 발달되기보다는 일련의 귀인양식이 대학생들의 개인적, 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주어 그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즉, 독특한 귀인양식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주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발달시킬 수 있겠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기대는 우울 정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귀인양식이 사회적 자원보다 개인적 자원에 대한 지각과 더 깊은 관련을 보인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부적응인 우울성향의 예방책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지를 달리하거나, 자아 존중감을 높여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면 좋을 듯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귀인양식이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적 자원인 자아 존중감보다는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생의 우울성향을 설명하는데 사회적 지원의 변인도 무시될 수 없는 듯하므로 대학생의 상담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원의 활용과 제공에 힘쓰는 일도 또한 제안될 수 있겠다.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대학생들의 독특한 생활 사건 즉, 실제 상황에 따른 귀인양식과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자원 그리고 우울성향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보는 것과 둘째, 귀인양식의 발달 과정에서 성별차이가 시사되므로(Abramson & Martin, 1981) 성별을 구분하여 위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여 보는 것과 셋째, 귀인양식, 개인적, 사회적 자원, 그리고 우울성향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종단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원의 출처에 따른 귀인양식과 우울성향의 정도에 관한 연구이다.

### 【참 고 문 헌】

- 1) 이영호.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 공변량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 2) Abramson, L. Y., & Martin, D. J. Depression and

- the causal inference process. In J. H. Harvey, W. Ickes, & R. F. K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Vol. 3). Hillsdale, NJ : Erlbaum. 1981, 117-168.
- 3) Abramson, L. Y., Seligman, M. E. P., & Teasdale, J. D.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 1978, 49-74.
  - 4)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1986, 1173-1182.
  - 5) Beck, A. T. *Depression :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7a.
  - 6) Beck, A. T. *Depression :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 Harper & Row. 1967b.
  - 7) Beck, A. T., & Young, J. E. College blues. *Psychology Today*, September, 1978, 83-92.
  - 8) Brewin, C. R. Internal attribution and self-esteem in depression : A theoretical no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4), 1986, 469-475.
  - 9) Brewin, C. R., & Furnham, A. Attributional versus preattributional variables in self-esteem and depression : A comparison and test of learned helplessnes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1986, 1013-1020.
  - 10) Brewin, C. R., MacCarthy, B., & Furnham, A. Social support in the face of adversity : The role of cognitive appraisa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1989, 354-372.
  - 11) Brown, G. W., Andrews, B., Harris, T., Adler, Z., & Bridge, L.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Medicine*, 16, 1986, 813-831.
  - 12) Bumberry, W., Oliver, J. M., & McClure, J. N. Validation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in a university population using psychiatric estimate as the criter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978, 150-155.
  - 13) Carver, C. S. How should multifaceted personality constructs be tested? Issues illustrated by self-monitoring, attributional style, and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989, 577-585.
  - 14) Cochran, S. D., & Hammen, C. L. Perception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on : A test of attributional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985, 1562-1571.
  - 15) Crocker, T., Alloy, L. B., & Kaye, N. T. Attributional style, depression, and perceptions of consensus for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1988, 840-846.
  - 16) Eckenrode, J. The mobilization of social supports : Some individual constrai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6), 1983, 509-528.
  - 17) Hobfoll, S. E., Freedy, J., Lane, C., & Geller, P. Conservation of social resources : Social support resource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7, 1990, 465-478.
  - 18) Lefcourt, H. M., Martin, R. A. & Saleh, W.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 Interactive moderators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2), 1984, 378-389.
  - 19) Lewinsohn, P. M., Steinmetz, J. L., Larson, D. W., & Franklin, J. Depression-related cognitions : Antecedent or consequ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3), 1981, 213-219.
  - 20) Metalsky, G. I., Abramson, L. Y., Seligman, M. E. P., Semmel, A., & Peterson, C. Attributional styles and life events in the classroom : Vulnerability and in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1982, 612-617.
  - 21) Metalsky, G. I., Halberstadt, L. J., & Abramson, L. Y. Vulnerability to depressive mood reduction

- : Toward a more powerful test of the diathesis-stress and causal mediation component of the reformulated theory of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987, 386-393.
- 22) Monroe, S. M., Imhoff, D. F., Wise, B. D., & Harris, J. E. Prediction of psychosocial circumstances :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ymptom specific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3), 1983, 338-350.
- 23) Oliver, J. M. & Burkhart, R.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 Duration, relation to calendar time, prevalence, and demographic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1979, 667-670.
- 24) Peterson, C., & Seligman, M. E. Causal explanations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3), 1984, 347-374.
- 25)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P. The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3), 1982, 287-300.
- 26)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7) Santrock, J. W. *Adolescence* (5th). Madison : Brown & Benchmark. 1994.
- 28)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 Sarason, B. R. Assessing social support :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983, 127-139.
- 29) Seligman, M. E. P., Abramson, L. Y., Semmel, A., & von Baeyer, C.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 1979, 242-247.
- 30) Tennen, H., & Herzberger, S.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987, 72-80.
- 31) Teuting, P., Koslow, S. H., & Hirshfeld, R. M. A. *Special report of depression research*. Rockville, MD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1.
- 32) Tiggemann, M., Winefield, A. H., Winefield, H. R., & Goldney, R. D. Prediction of psychological distress from attributional style : A test of the hopelessness model of depression.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43(3), 1991, 125-127.
- 33) Vinokur, A., Schul, Y., & Caplan, R. D. Determinan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 Interpersonal transactions, personal outlook, and transient affective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987, 1137-1145.